

우리나라 학생 신체검사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

장 호 상*

I. 서 언

오늘날 학생의 신체발달상황 및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건강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1951년에 제정하고 1991년에 개정을 본 학교 신체검사 규칙 <교육부령 제 594호> 제1조에 '학교는 학생 및 교직원의 신체의 질병 및 기타 결함의 발견 예방 간이치료, 건강증진, 체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규칙에 의한 신체검사를 실시한다.'라는 규정을 보면 신체검사를 통하여 건강이상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결과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질병에 대한 인식 및 예방법을 가르치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의도를 알 수 있고 지속적인 관찰과 간호, 추후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하는 목적을 찾을 수 있다.

학교 보건법 (법률 제 1928호) 제1조 목적을 보면 학교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증진토록 하였고 학생의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수단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동법 7조) 신체검사라함은 체격검사, 체질검사 및 체능검사를 지칭한다고 동법 제2조에 정의하고 있다. 또한 학교신체검사는 학교장이 매년 4월 1일부터 5

월 말일까지 실시하되 체격검사와 체능검사는 학교 교직원, 양호교사로 이를 검사케하고 체질검사 및 질병유무는 학교 축탁의로서 검사케 하였는데 (학교신체검사규칙 교육부령 594호) 현재 각급 학교에서 매년 실시되고 있는 신체검사는 과연 본연의 목적이나 규정에 맞게 실시되고 있는가에는 대단히 회의적이다.

왜냐면 미비한 시설과 불충분한 기구 사명감이 결여된 검사자의 태도나 의식에다 다수인의 대상자를 짧은 시간에 검사를 하게 되는데서 오는 결과의 신빙성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필자는 본교가 1991년 교육부지정 학교 보건 연구학교로 지정을 받고 2차년도 연구를 지속해 오고 있는바 그 동안 본교가 학교신체검사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적용하면서 대두되었던 검사상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그 개선책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II. 신체검사의 현황과 문제점

가. 체격검사

1) 검사도구

본교는 교육부지정 학교보건 연구학교임에 비추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 교구 설비 기준량 이상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으나 일선 현장의 손쉬운 활용면에서 볼때 현 교구

* 광주서국민학교(학교장)

설비 기준량 책정은 비합리적, 비능률적이며 현재와 같은 재래식 검사도구는 능률과 정밀도 등에서 신뢰성을 잃고 있으므로 첨단 자동계에 의한 계측기생산이 요망된다.

〈표 1〉 검사도구 현황

| 구분 | 신장계 | 좌고계 | 흉위자 | 체중계 | 기준대비 |
|-------|--------------|--------------|--------------|-------------------|-------|
| 수량 | 기준량 | 3 | 3 | 3 | 100% |
| | 확보량 | 6 | 6 | 6 | 200% |
| 형태 | 목적자 | 목적자 | 줄자 | 계량수동식3자 자동기계식3 | |
| 규격종 | 3 | 3 | 3 | 3 | |
| 구입년월일 | 88.3 91.4 | 88.3 91.4 | 88.3 91.4 | 88.3 91.4 | |
| 파손 | 1 | 1 | 1 | 2 | 20.8% |
| 재사용 | 5 | 5 | 5 | 4 | 79.1% |
| 정밀도 | 5/6 | 5/6 | 5/6 | 3/6 | 75.0% |

2) 검사방법

검사도구의 정확도를 높이고 오차를 줄일 수 있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 담임과 교실에 따라 검사도구를 이동 그 때마다 계측기의 부정확한 조작, 검사 보조원도 생략한 채 아동에게 기록을 맡기며 담임 혼자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실의 분위기, 남녀 구분없이 상하의 걸 옷 벗기등 피검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고려치 않는 검사는 극도의 위축된 자세가 되어 계측이 부정확할 수 밖에 없다.

3) 검사자의 태도

신체검사에 대한 검사자의 의식구조나 계측방법의 사전습득 및 대비에 대한 질문지 반응 결과를 보면

〈표 2〉 신체검사에 대한 의식구조

| 번호 | 내용 | 빈도 |
|----|-------------------------------|----|
| 1 | 성장 발달기에 기여키 위해 사명감을 갖고 임한다. | 5 |
| 2 | 전년도 검사부터 오류가 지속 정확히 계측하기 어렵다. | 11 |
| 3 | 정례 행사이니 계측하지 않을 수 없다. | 20 |
| 4 | 소신껏 계측한다. | 29 |

〈표 3〉 측정기술의 습득여부

N=65

| 번호 | 내용 | 빈도 |
|----|-------------------------|----|
| 1 | 신체검사 규칙 또는 검사 지침의 완전 숙지 | 2 |
| 2 | 검사요령만 전수 대강 알고 있음 | 24 |
| 3 | 임의 판단에 의거 임의검사 | 35 |
| 4 | 학교의 자료 제공에 의한 인식정도 | 4 |

〈표 4〉 신체검사의 사전대비

N=65

| 번호 | 내용 | 빈도 |
|----|---------------|----|
| 1 | 도구의 점검 정비 | 11 |
| 2 | 검사요령 사전 파악 | 14 |
| 3 | 아동에게 수검요령만 전달 | 29 |
| 4 | 검사 요원 조직 | 11 |

위 표에서와 같이 교육적 사명감을 갖고 검사에 임하는 교사는 7.7%로 연례 행사에 형식적 참여를 보이고 있고 측정기술의 습득여부는 오랜 관례에 의한 임상적 판단(53.8%)에 따르고 있으며 신체검사의 사전대비는 거의 없는편(14.2%)이다.

4) 검사의 결과

계측을 할 때마다 측정치가 다르다는 것은 측정상의 정확도가 다르다는 뜻인데 여러번 검사하여 평균 처리한 것이 가장 신뢰도가 높으며 조원편성에 의한 측정이 오차가 적게 나타난다.

〈표 5〉 검사자에 따른 오차

※ 7세 남 N=44

| 구분 | 1회 측정 | 3회 측정 평균 | 조원편성 측정 | 비고 |
|----|--------|----------|---------|-------|
| 신장 | 124.04 | 125.49 | 125.65 | |
| 체중 | 24.95 | 24.98 | 24.98 | -0.08 |
| 흉위 | 60.32 | 60.50 | 59.51 | |
| 좌고 | 69.44 | 69.92 | 69.91 | |

그러나 수회 검사하여 평균 처리하는 데는 시간의 과다 소모, 조원 편성 측정조는 가담 교사의 수업 결손이 뒤따른다.

한편 전년도 검사 기록과 금년도 검사 기록

과의 차이는 거의 각반마다 2~3명이 나타나 전교 4.5%의 오차를 보이고 있으며 4종목을 측정하는데 3시간이 소요 학생 1인당 2.4분의 학습결손을 초래하였다 (50명 단위 1개반).

또 검사 후의 활용도에 있어서도 활용상의 별 필요를 느끼지 못하며 검사당시 전년대비 성장율만 가늠해 보는 정도의 검사를 위한 검사의 기록에 그치고 있다.

나. 체급검사

1) 검사방법

양호교사의 협조를 얻어 의사 혼자 교실 각동의 중앙 복도 간이시설에 간단한 검진 도구를 비치하고 해당 학반을 차례로 면담, 피상적 검사로 1개 반을(50명 기준)검진하는데 약 7~8분을 소모한다.

<표 6>

검사 개요

| 일 시 | 장 소 | 소 품 | 검 사 자 | 보 조 원 | 검 사 대 상 | 검 사 방 법 |
|---------|--------|------|-------|-------|------------|-------------------|
| 5/20~31 | 각동중앙복도 | 검진기구 | 축탁의 | 양호교사 | 전교생 2,600명 | 면담, 사진, 청진 타진, 촉진 |

2) 검사 내용

가) 축탁의의 검진

<표 7> 을 보면 다음의 사항들을 지적할 수 있다.

① 형식적 검사

2600여 아동을 혼자서 차례에 따른 임상적 검사는 1인당 검사 소요시간 8-9초로 4.6%의 질병 발견율에서 보듯 피상적 검사가 우려되고 있으며 양호교사의 질병 발견 의뢰 아동수 11.2%에 크게 뒤지고 있다.

② 학부형들의 불신

학교의 검진 결과를 통보 받은 학부모는 시

설미비와 전문의 분야의 검진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부여치 않고 있으며 타 병원의 재 검진에 임하고 있다.

③ 저수가에 따른 검진 기피

아동 1인당 검사 비용 80원, 시설불비, 과도한 검진 등의 부담은 검사에 임하는 의사의 사명감과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④ 오진 및 질병 미발견에 대한 우려 제한된 시간, 과도한 수검자들의 부담은 전문 이외의 분야에 대한 오진 및 보유 질병의 미발견에 대한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표 7>

검진별 내용

| 항 목 | 대 상 | 요 원 | 보 조 원 | 주요검사대상 | 검 사 방 법 | 1인당 검사시간 | 요원체류시간 | 1인당 검사비용 | 질병발견율 |
|------|-----|--------|-------|---------------------|----------|----------|--------|----------|---------------------|
| 건강진단 | 전교생 | 축탁의 | 양호교사 | 체질,심장,안구, 구강,빈혈 | 면담 및 임상법 | 8-9초 | 7 | 80원 | 4.6% (121/2600) |
| " | " | 양호교사 | 담 임 | " | " | 63초 | . | . | 11.2% (290/2600) |
| 구강검진 | " | 치과의 | 간호사 | 구강위생충치 | 발치치료 | 24분 | 4 | 300원 | 8% (208/2600) |
| 혈뇨검사 | 16년 | 병리검사원 | 검사원 | 혈청,뇨검사 | 병리검사 | 24분 | 4 | 300원 | 6% |
| 기타예방 | 전교생 | 시보건의료원 | 보건요원 | 간염,장티프스,뇌염,콜레라,TB검사 | 예방주사 | 30초 | 4 | . | 3% |

나) 교사의 검사

① 시력

<표 8> 시력판정에 대한 이해

N=65

| 시력표 설치구간 | 조 도 | 조 작 법 | 정확한지식및판독 |
|------------|------------|----------|------------|
| 61.5% (40) | 23.1% (15) | 60% (39) | 66.1% (43) |

시력판정에 중요한 실내조도를 알고 있는 교사는 23%, 정확한 지식 및 판독 등은 60%내외로 확신을 갖고 임하는 교사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② 굴절이상

〈표 9〉 굴절이상의 판정 요령

N=65

| 판정요령숙지 | 미 숙 | 판정경험있음 |
|--------|-----|--------|
| 3 | 60 | 2 |

굴절이상은 거의 판정할 수 없으며 경험을 했거나 판정요령을 숙지하고 있는 교사는 2~3명에 불과하다.

③ 색신

〈표 10〉 색신표의 판독여부

N=65

| 의미를 파악 정확히 판정 | 적당히 판정 | 판독할수없음 | 이해할수없음 |
|---------------|--------|--------|--------|
| 4 | 53 | 5 | 3 |

안내된 책자에 따라 판정할 수는 있으나 엄격한 판정을 주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개 선 책

가. 체격검사 요원의 전문화

학생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체력향상 등을 도모하여 바른 성장과 건전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도와주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것이 학교신체검사이다.

그러나 교사의 사명감 결여, 단일한 타성, 검사도구의 미비와 일천한 시설, 시간의 과다한 소모, 검사의 미숙, 참여아동의 위축 등 여러 어려움을 앞세워 형식에 그치고 있는 신체검사는 적극 활성화 되고 정확히 검사 되어야 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방안으로 검사요원의 전문화를 주장한다.

검사요원 전문화란 학교 유휴인력을 최대한 동원 그들로 하여금 전문교육을 받고 전문영역에 신체검사 기간동안만 검사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양호교사, 체육교과 전담교사, 증치 및 보조교사, 부족하면 사무요원까지 그리고 지원요원으로 학교 행정가들의 지도도 받을 수 있으며 이들의 사전연수와 조직기능을 활성화시켜 그들의 도움을 받아 검사의 정확과 교육과정 침해의 시수를 줄여보자는 것이다.

나. 유휴교실의 고정 신체검사장화

신체검사 때마다 검사도구의 각 교실 이동으로 인한 기구의 훼손과 계측기의 불안한 조작, 신검으로 인한 각 교실의 소란과 무질서를 줄이기 위해 각 학교의 특별실, 양호실, 교사휴게실 등 유휴교실에 검사도구를 고정배치 시간배정에 따른 학급 담임 교사의 인솔로 지정된 고정 신체검사장에서 고정된 전문요원의 검사를 거치도록하면 시간의 절약, 검사의 정확, 혼란의 방지, 일의 능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수검자의 다선 표집화

의사 한 분인 2600여 아동을 검진함은 형식이요 무리이다. 꼭 검진에 응할 어린이만 선별 질병 소유자의 정확한 검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첫째 신체검사 기간을 앞두고 우선 학반 아동에게 신검의 취지를 알리고 평소 자기의 건강 관리상 의심되는 부위를 검사 받고자 하는 아동에 대한 희망자를 조사한다. 둘째 가정에 서신을 띄워 평소 자기 자녀의 건강상 어느 부위가 의심되어 꼭 검진받고자 하는지 부모의 천거를 받는다.

세째 학반 담임의 관찰에 의거 평소 건강이 좋지 않게 보이는 아동을 선정 검진에 응하도록 한다. 네째 양호교사의 월 1회 월간 위생교육시 각반을 차례로 순회 교육하는 자리에서 양호교사의 접견, 면담에 의해 건강 허약자를 발견 신검 기간 공의의 검진에 응하게 하면 적은 수로 꼭 검진이 필요한 학생만 엄선 정확히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단 아동, 부모, 담임의 검진 의뢰자는 소견서나 쉽게 판별되는 건강 이상자의 선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 정기 건강진단의 격년제화

매년 정례적 형식의 정기 검사보다 건강진단을 2~3년마다 실시하여 경비의 절감 검사의 엄밀성을 도모하였으면 한다.

Ⅳ. 결 어

형식적이고 비능률적이며 부정확한 신체검사를 효율적이고 보다 정확한 검사의 도출을 위

해 검사요원의 전문화, 유희교실의 고정 신체검사장치를 기하고 축락의 다인수 검사로 인한 점진성의 문제점 해결은 다선 표집에 의한 전문의 검진 및 건강진단의 격년제 실시 등을 주장해 보았다.

언제 어디서나 시행상 문제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변화를 두려워하면 보다 나은 개선책은 요원할 것이므로 학교보건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끊임없는 노력과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부단한 연구제도적인 개선과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화중, 학생건강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 학교보건학회지, 1988, 3.
2. 김화중, 학교보건과 간호. 수문사, 1984.
3. 교육부, 학교보건법 시행령. 교육법전.
4. 교육부, 학교신체검사규칙. 교육법전.
5. 윤예현, 신체검사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 및 활용 방안 탐색. 서울구의국민학교. 1991.